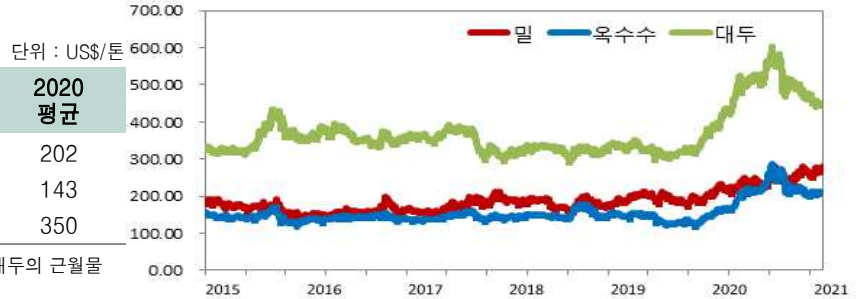


## 대두 선물가격, 에너지와 식물성 기름 시장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

###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

구분	기준일 ('21.10.25)	전일대비	전월평균 ('21.09)	2020 평균
밀	279.06	▲0.5%	261	202
옥수수	211.80	-	206	143
대두	454.60	▲1.4%	471	35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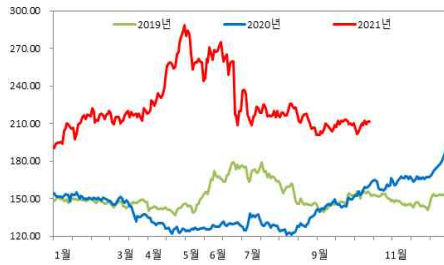
주1.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(적색연질밀; SRW), 옥수수, 대두의 근월물 (밀 : 12월, 옥수수 : 12월, 대두 : 11월물) 정산가격임.

### 밀 선물시장 상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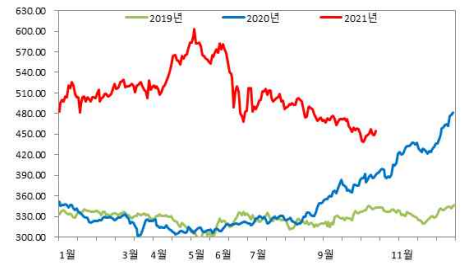
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.5% 상승했다. 밀 선물가격은 세계 수요 증가와 고단백 밀 공급에 대한 우려로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. 미 농무부는 지난주 미국의 밀 수출 검사량을 14만 413톤으로 발표했는데, 이는 무역 예상치인 15만~45만 톤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치이다. 또한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마케팅 연도의 밀 수출 검사량은 948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.5% 감소했다. 미 농무부의 주간 작물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, 분석가들은 평균적으로 미국의 겨울 밀 파종 진행률이 지난주 70%에서 81%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. 또한 분석가들은 미국 겨울 밀의 54%가 양호-우수할 것으로 예상했다.

###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
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과 동일했다. 옥수수 선물가격은 밀 시장의 강세가 실망스러운 주간 수출 데이터 및 수요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변동없이 마감했다. 실망스러운 주간 수출 데이터가 시장을 뒤덮었다. 미 농무부는 지난주 미국의 옥수수 수출 검사량을 54만 5,127톤으로 발표했다. 또한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마케팅 연도의 옥수수 수출 검사량은 471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.6% 감소했다. 미 농무부의 주간 작물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, 분석가들은 평균적으로 미국의 옥수수 수확량이 일주일 전의 52%에서 65%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. 글로벌 농업 기업 Archer-Daniels-Midland Co ADM.N와 Bunge Ltd BG.N은 허리케인 아이다 이후 몇 주간 수출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.

### 대두 선물시장 상황
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.4% 상승했다. 대두 선물가격은 세계 에너지 및 식물성 기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데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. 거래자들은 월요일의 수출 데이터가 대두 선물에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. 미 농무부는 이번 주 미국의 대두 수출 검사량을 210만 3,505톤으로 발표했다. 또한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마케팅 연도의 대두 수출 검사량은 812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% 감소했다. 미 농무부의 주간 작물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, 분석가들은 평균적으로 미국의 대두 수확량이 일주일 전의 60%에서 74%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.

### 관련동향

- HRW 밀 수출 프리미엄은 구매자들이 다른 대체 밀로 전환하면서 상승. SRW 밀 및 DNS(PNW) 밀 베이스는 강한 수요와 타이트한 글로벌 공급으로 인해 상승. 옥수수는 대부분 안정세를 보였으나 공급 증가와 수요 부진으로 약세를 보임.
- 25일 국제유가(Brent 기준)는 세계 석유수요 증가 전망 등으로 상승.

2021. 10. 26.

KREI



구분		기준일	전일대비	구분		기준일	전일대비
곡물수출가격 (FOB)	밀	333	▲3.4%	환율	원/달러	1,178.4	▲0.2%
	옥수수	265	▲0.8%		달러/유로	1.1644	▲0.2%
	대두	495	▼0.6%	국제유가	WTI	83.76	-
	쌀	392	-		Dubai	84.37	▲2.2%

1) 밀(US SRW Gulf), 옥수수(US 3YC Gulf), 대두(US Gulf), 쌀(Thailand 100% Grande B), WTI(근월물), Dubai(현물)

2) 기준일은 '21.10.22(수출가격), '21.10.25(환율), '21.10.25(국제유가)이며 자료출처(국제곡물이사회, 한국은행, 한국석유공사)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